

# 第1回 北東アジア言語教育研究発表会

## 要旨集

主催：北東アジア言語教育研究会 於 九州大学西新プラザ中会議室  
2019年3月2日（土）・3日（日）

## 第二言語教育と時代相

### —日中戦時下における中国語教育瞥見—

#### 【中国語教育】

秋吉收（九州大学）

吉川幸次郎は、1937年に始まった日中戦争が長期化し泥沼化していく最中の1940年に、「支那語の不幸」と題する次のような文章を書いている。

現代のわが国で、もっとも正当に認識されていない外国文化は支那文化であり、もっとも不幸な状態に放置されている外国語は支那語学である。（中略）支那語は「同文」であるが為に、国語と同じ言葉、——とまではゆかなくとも、大して変りのない言葉のように、考えられ勝ちである。つまり外国語としては意識されにくいのであり、たとい外国語として意識されたとしても、あまり学習に努力を要せぬ外国語だと考えられ勝ちである。われわれは漢字を知っているのだから、同じ漢字で書いた支那の文章ぐらい、わけなく読めるというのである。（中略）しかしこれは錯覚である。われわれの国語と支那語とは、全くちがった言語である。語序がちがうことは、誰でも知っている。一人語序ばかりでなく、言語の構造が、根本的にちがうのである。そのちがいは、国語とヨーロッパ語との距離に、決して劣るものではない。それは、この二つの民族の文化が、全く同じものではないのと、一般である。（「支那語の不幸」『文藝春秋』1940年9月号。）

当時、京都帝国大学支那文学科主任であった吉川は、中国（支那）文化、中国（支那）語を正当に理解するよう一貫して主張する（「翻訳時評（二）」1941年）が、それを実現することは極めて困難な情勢であった。欧米の文明を模倣した明治維新によって、アジアで最初に物質的な豊かさを手に入れた日本人は、欧米文化にばかり傾倒し、中国を始めとする同じアジアの国々の文化、言語に対しては冷眼を与え続けたのである。

日本と中国、台湾の近代における複雑な関係は、日本人と中国語の関わりの上に極めて深刻な影を落としている。日本人にとって「漢文」は、国家の規範を形作り、知識人のよすがとなる崇敬の対象であったが、口語たる「中国語」は長い間重視されることはなく、軽侮の対象でさえあったのだ。日本における中国語の呼称が、唐話、漢語、清（国）語、支那語、華語、満（州）語、チャン語と、時代とともに様々に変化してきたことは、その複雑な状況を端的に表している。

今回の発表では、日本における中国語教育の歴史、人々の意識をいま一度繙くと同時に、真の国際理解を招来する言語の役割について考察したい。

## 中国日语专业大学生跨文化交际能力调查研究

### 【日本語教育】

姚艳玲（中国大连外国语大学）

本研究基于外语教育视角的跨文化交际理论，运用外语专业大学生跨文化交际能力自测量表从定量研究观点考察了中国日语专业大学生跨文化交际能力的现状。研究表明，日语专业大学生总体跨文化交际能力状态不十分理想（均值为 3.10），在 8 个维度中，跨文化态度最高（3.99），语言能力最低（2.51）。

日语专业大学生跨文化交际能力八项子能力的均值高低排序显示为，态度>意识>技能>社会语言>策略>语篇>知识>语言能力。也就是日语专业学生整体上都具备积极的跨文化态度，愿意与日本人进行交流，有进行跨文化交际活动的意愿和开放的心理。但是语言能力的不足及跨文化知识的欠缺阻碍了跨文化交际活动的顺利进行。

另外在语篇能力、策略能力、跨文化知识上日语专业不同年级间存在显著性差异，这三项能力会随着学习年数的增加逐渐改善。同时在其他语言、社会语言、态度、意识、技能等方面不同年级间不存在显著差异表明，跨文化态度、意识、技能等能力方面日语专业学生无论年级高低始终保持着跨文化交际的积极态度和较强的意识动机；而在语言、社会语言能力方面可以说在大学四年的专业学习期间始终是学生很难提高的能力。

与英语专业相比日语专业学生在跨文化态度与跨文化意识等跨文化能力上还存在显著差异。日语学生根据社会语境调整自己语言行为的能力及组织完整语篇的能力还不十分擅长，在跨文化态度上还不够积极，以及对文化差异的敏感性和批判性意识还不够强。

另外日语专业大学生整体倾向为随着学习年数的增加，跨文化交际能力会逐渐提高，但部分题项中也出现了高年级学生反而低于低年级阶段的现象。这是由于高年级学生在接触到更多的具体交际实践后，对自己的交际与跨文化能力提出了更高的要求，对自己现有的能力感到不满足。

据此本文提出日语专业在课程设置及教学活动中要有效地提高学习者的交际能力与跨文化能力。本研究为把握日语专业大学生跨文化交际能力现状提供了理论依据。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음성(音相) 발달에 관한 고찰

【韓国語教育】

정명숙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음성상징어'가 발달해 있다는 것인데, 한국어 음성상징어 중에는 '뚱뚱하다, 통통하다, 뚱뚱하다, 통통하다'와 같이 자음이나 모음의 차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 것이 많다. 이런 이유로 음성상징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성상징어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음성상징어의 수는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많지만, 한국어 교실에서 음성상징어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하려고 하니 그 수가 너무 많고, 어휘 수가 많은 데 반해 실생활 의사소통에서의 사용 빈도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음성상징어가 교육의 효율성 면에서 하위를 차지한다고는 하나 음성상징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정교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다.

음성상징어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혹자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성상징어의 어감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가 발달하면서 한국어 음성상징어가 가지는 음상도 함께 발달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음성상징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기간(한국 내 체류 기간)에 따른 음상의 발달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음성 발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이 알지 못하는 음성상징어를 문장과 함께 제시해 문장의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들도 알지 못하는, 즉 새롭게 만들어진 음성상징어를 실험 자료에 포함할 것이며, 이 실험은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도 실시할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음상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음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음성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실험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오랫동안 학습해서 음성상징어의 어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 他者評価による日本語学習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トラテジー

【日本語教育】

安芝恩（九州大学）

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への注目が高まっている中で、日本国内でも日本語学習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研究などが多く行われている。文法・社会言語・談話・方略的能力の統合であ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Canale & Swain, 1980; Canale, 1983)のうち、方略的能力と関わ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トラテジー(Communication strategies, CS)(Council of Europe, 2001)に関する研究は、文法能力に焦点を当て日本語学習者の CS を分析(荻原, 1996; 方, 2010; エミ, 2012)した研究が主流である。特に、これらの研究は、研究者の視点から日本語学習者の CS を分析した研究である。一方、学習者の視点(林, 2007; 許, 2014; 宋, 2015; 安, 2016)に焦点を当てフォローアップ・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研究もある。しか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に対する認識の違いが見られる(Yufrizal, 2017; 町田, 2018)中で、文法能力だけが日本語学習者の CS 使用に影響を与えているとは言い難い(安, 2016)。また、日本語学習者は会話がスムーズに進む場合もそうでない場合も類似した傾向の CS を使用している(安, 2018)と自己評価していることから、研究者、日本語学習者だけでなく、教える側である日本語教師による日本語学習者の CS 使用の他者評価も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

そこで、日本語教育機関で日本語学習者に日本語を教えた経験がある元・現役日本語教師 23 名を対象に日本語学習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単一応答、複数応答、自由記述を含む)をし、EXCEL で単純集計を行った。その結果、日本語教師は会話がスムーズに進む際に日本語学習者が[わからないことを伝える、相手に意味を確認する、意味の似たような言葉を伝える、ジェスチャーで伝える]のような CS を使用していると他者評価をしているが、[母語を使用する、話題を変える、メッセージを放棄する、電子機器を利用して言いたいことを伝える]のような CS を使用した際に会話に問題が生じると他者評価を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日本語学習者の自己評価(安, 2018)とは異なる傾向が見られたこと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に対する自己評価・他者評価という両者の認識の違い(Yufrizal, 2017; 町田, 2018)が影響している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と。

## 해외에서의 한국학 전공 교육 발전을 위하여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韓国語教育】

박병선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류의 유행과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가고 있다. 일반 학습자들의 증가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학이 자리를 잡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문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이고 대중 문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해외 현지의 문화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국학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전공 교육에 있어서의 특징을 문제점 중심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학 전공 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공자를 위한 교재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 개선점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어문 전공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용어 교육을 위한 대조언어학적 관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소개한다.

##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통역 수업 운영 방안

【韓国語教育】

김유선 (長崎外国語大学)

1984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한글강좌'를 계기로 한국어 학습의 대중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2002년 대학입시센터시험에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포함되면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며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의 수도 대폭 늘어났다. 이와 같은 대학 내 한국어는 대부분 초급 수준의 비전공과목으로 운영되었는데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 내 '한류' 열풍과 2000년 후반부터는 10대와 20대 사이를 중심으로 한 K-POP의 영향으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크게 늘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도 크게 증가했는데, 발표자의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한국어 전공생들은 '원어민과 같이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뚜렷하고 강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것은 최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익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최고급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일본 내의 외국어 교육은 '알고 있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인 학습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외국어 능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통역 교육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통역 교육을 활용한 사례를 들어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통역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대학이 대폭 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통역 과목이 개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 내 대학에서 학부 수준의 통역수업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통역 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목표 언어의 산출(out-put) 기회가 부족한 학습자 모국어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말하기 활동과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과업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하여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나가사키외국어대학에서 '기독교 문화재 통역'이라는 주제로 운영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학부 수준의 한국어 통역수업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宮崎大学における日本語教育・研究・事業の展開

### 【日本語教育】

長友和彦・伊藤健一・寺尾智史・杉村佳彦（宮崎大学）

私ども共同発表者4人は、今と近未来の高等教育機関の役割および社会のニーズを見据えながら、宮崎大学を核とした次のような日本語教育・研究・事業に取り組んでいる。その内容について発表を行い、参加者の忌憚のないコメント等を得て、更なる取り組みの糧にしたい。

#### 「交換留学生の就職促進：ビジネスクラス、インターンシップクラス開設」

2016年度よりビジネス日本語クラスを新設した。同時に、「日本語課外授業」という従来の留学生日本体験型クラスも「日本語地域インターンシップ」へと科目名を変更し、専門性を取り入れた授業を提供している。背景には「留学、観光、友達作り型留学」から「アルバイト、インターンシップ、就職型」への強い要望があり、特に、交換留学生から要望の強かった分野での強化を図った。また、2018年度より更なるレベルの細分化を図り、ビジネスクラスを中級と上級に分けた。その結果、日本国内での就職成功組が増加し、クラス変更が功を奏した形となった。

#### 「宮崎大学での日本語教育の一例——日本語における虚詞的句の理解に向けて」

宮崎大学では、日本語を学習する留学生の中に北東アジア地域出身者が多い。彼らは、漢語熟語をベースとした語彙力をしてこに比較的スムーズに日本語を習得しているが、一方で彼らに特徴的な誤用もある。これらのうち、文法上の誤りは、中国語にはない助詞をはじめ、主に日本語の品詞分類から整理され、指摘されてきた。しかし、例えば、熟語と熟語等をつなぐ、中国語で言えば「虚詞」と概括されるような品詞横断的句（～な／～の／～的／～した／～上の 等）の運用に起因する誤用も多い。この切り口から誤用を再整理する。

#### 「宮崎－バンングラデシュモデル」

バンングラデシュの就職難、日本の地方での若手流出・ICT人材不足という課題を改善すべく、JICA、宮崎市、地域ICT企業、宮崎大学が連携して、バンングラデシュの優秀なICT人材に日本語教育を提供して宮崎へ受け入れるプロジェクト「宮崎－バンングラデシュモデル」が2017年から始まった。まず、JICAが現地で3ヶ月の日本語教育を行い、その間に宮崎のICT企業と人材マッチングを行う。プログラム後は、内定者を宮崎大学へ3ヶ月間



留学させて日本語教育と企業等でのインターンシップを行いながら、ICT人材の地域への順化と地方企業の国際化を同時に支援している。外国からの人材受入モデルとして全国から注目されている。

#### 「宮崎大学発日本語教育ベンチャー」

労働者、永住者、留学生等、外国からの来住者の急増が確実に見込まれる中、日本語教育・支援ネットワークの構築は日本社会の今後を左右する喫緊の課題となっている。私どもは、大学が主導しつつも産学官民連携でその課題と取り組むべく、「宮崎大学発日本語教育ベンチャー」を立ち上げることにした。この株式会社では主として日本語教育・支援、日本語教員養成に取り組む。

## 中国語初級教育における語順の指導について

—日本語・英語との比較を通して—

【中国語教育】

单艾婷（九州大学）

由于汉语的形态不发达，所以语序成了主要的语法手段之一。如“我爱他”和“他爱我”，同样是“我”、“爱”、“他”三个词，语序不一样语法意义也就不一样。而日语母语学习者对汉语语序的把握较为薄弱，经常出现语序不当的错误。其中一方面是受了母语日语语序的影响，另一方面是也会受到英语的影响。其中前者为黏着语，后者是屈折语，而汉语是孤立语。由于没有意识到日、英、汉三种语言的语言类型存在区别，容易产生一系列的错误。

有研究认为学习汉语时，应该“抛弃”英文，因为其实汉语的语序和日文的语序更接近。也有的研究指出从初中甚至小学时就开始学习的英语不可能毫无影响，应该灵活运用英、汉语相似的地方来有效地学习汉语。笔者较为赞同后者的观点，理由有两个。一是当学习者有英语知识时，难免不受影响，与其“抛弃”，不如弄清楚日、英、汉语三者的异同，从而提高学习效率。二是笔者发现有些汉语语法点从英文导入，确实可以让学习者更加容易理解和记忆。

笔者着眼于日本大学初级汉语教材出现的语法点，从整体上将其分为Ⅰ.“主谓句”（名词谓语句、形容词谓语句、动词谓语句（SV0、双宾语句SV00、连动句、兼语句）），Ⅱ.“动词谓语句”的前后成分（能愿动词（助动词）、状语成分（介词短语、时间词、副词类）、补语），Ⅲ.“其他”（疑问句、祈使句、存现句（自然现象、出现、存在、消失））三大类。通过梳理和比较中、日、英三者的语序，结果表明：在导入“动词谓语句”（SV0、SV00、连动句、兼语句）、“能愿动词（助动词）”、“补语”（情态、时量、动量）、“祈使句”时，可以利用英文的知识来帮助学习者理解和记忆汉语的语序。而对于“主谓谓语句”、“疑问句（5W1H）”、“状语成分”（介词短语、时间词、副词类）的导入，可以利用学习者的母语日文的语序来帮助理解和记忆，从而提高学习效率。然而，“名词谓语句”、“形容词谓语句”、“存现句”（自然现象、出现、存在、消失）在导入时，需要和日、英文进行对比，向学习者提示三者的差异，从而促进其更好的理解。

在汉语初级阶段，对于语序的教学，笔者想提出以下四点建议：1、协助学习者分清句子成分（主、谓、宾、定、状、补）。因为笔者也发现有时学习者知道语序，但是由于没有弄清句子成分而导致语序不当。2、让学习者明确中、日、英三者语序的相似点和不同点。灵活有效地利用日文以及英文的知识，来更好地理解记忆汉语的语序。3、给学习者提示语法点的公式，方便其比较、记忆和运用。4、让学习者理解语序背后的规律，如句子信息构造和焦点不同，而导致语序的不同等等，为学习者提供新的视角和更有效的学习方法。

## つながりを売り出す言語教育サービスの商品化

### —香港の民間日本語学校の事例をもとに—

【日本語教育】

瀬尾匡輝（茨城大学）

本発表では、「商品化」をある物や活動が経済的行為や社会的地位と結びつき、価値を持つようになることと定義する。これまでの言語教育サービスの商品化の議論では、新自由主義的競争原理の観点から、文化資本を獲得蓄積するための投資（Norton Peirce, 1995）を目的とした言語教育の商品化が中心的な話題となっていた。だが、人々は必ずしも人的資本の増大のために言語を学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満足感や喜びを得るために外国語を学習する「余暇活動と消費としての外国語学習」（Kubota 2011）もある。そのなかで瀬尾（2018）は、余暇活動として日本語を学ぶ学習者が多い香港の民間日本語学校の学習者 25 名へのインタビュー調査から、日本のポップカルチャーへの興味・関心から日本語を学びはじめた調査協力者達が、教師や他のクラスメートといった他者とのつながりを意識し、互いに学び合うことを有意義に感じるようになっ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そして、その結果から、日本における消費文化の歴史をまとめた三浦（2012）を引用し、調査協力者達が「自分らしさ」を追求するための個人志向の「第三の消費」から個人間のつながりを生み出すことを目指す「第四の消費」に移行していたと結論付けている。では、教育機関は他者とのつながりを求める学習者に対してどのように言語教育サービスを商品として売り出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本発表では、香港の民間日本語学校 6 校のプログラム運営者 7 名（日本語母語話者 2 名、非母語話者 5 名）及び教師 28 名（日本語母語話者 11 名、非母語話者 17 名）へのインタビュー調査から、かれらがどのようにして他者とのつながりを商品として売り出しているのかを探った結果を報告する。

調査の結果、プログラム運営者は学校全体のハイキングや新年会によって学習者間のつながりを深め、学習者の満足度を高めることで学習者を獲得しようとしていた。そして、教師も SNS 上で学習者とやりとりをしたり、教室外で学習者達と食事したりするなどして学習者とのつながりを深め、かれらの満足度を高めようとしていた。

だが、つながりを重視した言語教育サービスの商品化には次のような課題があった。学習者がクラスメートと一緒に授業をとりたいとクレームしたことから、進級テストに合格しなくとも進級させるなど、教師は教育効果の観点から疑問を持っていた。

発表では、これらの分析をもとに、つながりを売り出す日本語教育の商品化について参加者とともに考えたい。